

제23권: 2005. 4. 14.

한·칠레 FTA 이행 1년의 농업부문 평가

최세균 허주녕

1. 문제의 제기	1
2. 피해액 추정 연구 결과 검토	2
3. 대칠레 농산물 수입 변화	4
4. 품목별 수입 실적 평가	6
5. 종합평가 및 제언	10



내용 문의: 최세균 선임연구위원 02-3299-4246 skchoi@krei.re.kr
자료 문의: 이성규 (정보플라자) 02-3299-4213 sklee@krei.re.kr

- 『KREI 농정연구속보』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히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문제의 제기

2004년 4월 1일에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다. 그 후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칠레와의 FTA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다발적 FTA 정책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년간의 이행실적을 놓고 볼 때 농산물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 관심 품목: 한·칠레 FTA 체결로 농산물 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품목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10년간 관세가 철폐되는 포도, 키위, 복숭아, 돼지고기와 5년간 관세가 철폐되는 포도주 등 5개 품목이 있다. 이 가운데 복숭아를 제외한 4개 품목이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포도는 계절관세 적용 품목으로 5월부터 10월까지의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고, 복숭아는 식물검역 규정에 의해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어 관세 감축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품목이다.

주요 쟁점: 한·칠레 FTA 이행 1년을 평가함에 있어서 농산물과 관련된 쟁점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 농업 부문의 피해는 미미한 것이라는 점, 둘째, 농업 부문 피해액 추정의 적정성 및 수입증대 가능성에 대한 예측성, 셋째, 한·칠레 FTA 이행 결과를 놓고 볼 때 향후 FTA 추진에 있어서 농업 부문에 대한 우려는 감소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2. 피해액 추정 연구 결과 검토

한·칠레 FTA 체결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끈 것 가운데 하나가 FTA로 인한 효과 특히 농업 부문의 피해와 관련된 것이다. 한·칠레 FTA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으나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나온 결과는 실제 협상 타결 내용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협상 타결 이후에 수행된 연구에 대하여만 검토하고자 한다. 협상이 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된 농업 부문의 연구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최세균 외, 2002)에서 수행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양대학교(문춘걸 외, 2003)에서 수행한 것이다.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최세균 외, 2002) 연구결과

과일: 협상 타결로 인한 과수 부문의 피해 규모가 소득개념으로 10년간 3,0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연평균 300억원 정도의 피해를 의미하나 연도별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관세 감축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피해액이 미미하나(초기 연도 피해액 29억원) 관세 감축 폭이 커지는 10년 뒤에는 연간 피해액이 6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WTO/DDA 협상 타결을 가정(2006년부터 5년간 관세가 15% 감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한 과수농가 소득을 피해액 추정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포도는 10년간 피해액을 의미하나 복숭아는 식물검역법에 의한 수입 제한이 2008년도에 해제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신선 과일은 물론 가공용 및 대체 수요가 포함된 포괄적인 피해를 산정하였다.

축산물: 칠레의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자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닭고기의 냉동육과 일부 돼지고기(냉동육/도체 및 이분도체 등)의 냉동육은 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으로 분류하였으며, TRQ 규모가 우리나라

수입규모에 비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칠레산 축산물 수입은 우리나라 축산물과의 직접적인 경쟁은 어렵고 수입육 시장에서 제3국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하고 수입을 인한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 한·칠레 FTA 과수 부문 영향

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과수 소득 (기준)	18,132	21,891	21,635	26,422	21,330	24,090	21,265	24,030	20,810	23,540
과수 소득 (관세감축시)	18,103	21,860	21,590	26,356	21,078	23,724	20,810	23,497	20,218	22,873
추정 피해액	29	31	45	64	252	366	456	533	592	667

자료: 최세균 외(2002),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 부문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52.

2.2. 한양대학교(문춘걸 외, 2003) 연구 결과

10년간 피해액을 조수입 개념으로 5,860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연평균 피해액을 586억원 정도로 추정한 것이며 초기 연도에 104억원에서 시작하여 10년차에는 1,039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가공용과 대체품의 피해를 포괄하고 있으나 WTO/DDA 협상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조수입 개념을 사용하여 소득 개념에 비해 피해액이 크게 나타난 측면과 피해액 추정의 기준 연도를 고정시킴으로써 피해액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표 2. 한양대학교 추정 한·칠레 FTA 과수 부문 영향

단위 : 억원

구분	주요품목	기타 품목	신선과실 소계	가공용	총계
당해 연도	61	5	66	38	104
1차 연도	129	11	140	80	220
2차 연도	198	16	214	123	337
3차 연도	264	22	286	165	451
4차 연도	325	27	352	206	558
5차 연도	381	32	413	245	658
6차 연도	433	36	469	282	751
7차 연도	484	40	524	318	842
8차 연도	531	44	575	354	929
9차 연도	575	48	652	387	1,039
계	3,381	281	3,662	2,198	5,860

자료: 문춘걸 외(2003), 『한·칠레 FTA 발효 시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피해액 분석』,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3. FTA 전후의 농산물 수입 변화

FTA 체결 효과를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철폐 또는 감축에 한정하여 평가한다면 관세 감축 대상 품목과 농산물 교역을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 동식물검역의 양자 간 협상 결과에 의한 추가적인 수입 허용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칠레 FTA 체결로 농산물 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부분은 동식물검역 관련 품목은 없으며 관세철폐 또는 감축 대상 품목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10년간 관세가 철폐되는 포도, 키위, 복숭아, 돼지고기 등이 있다.

2004년에 칠레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축산물과 임산물 제외)은 2,650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이며, 2003년 대비 증가율은 21.5%이다. 칠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2001년 0.2%, 2002년 0.3%, 2003년 0.4%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FTA 발효 이후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년 대비 증가율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총수입 증가율 19.8%와 비슷한 수준이다(1.7%포인트 높음).

그러나 축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 농림축산물의 2004년 대칠레 수입은 59.8%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 증가율 9.8%보다 크게 높았다. 그 원인은 주로 축산물(돼지고기)과 임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며(축산물 80.1%, 임산물 72.5% 증가), 칠레의 우리나라 수입 농림축산물 시장 점유율은 2000년 0.5%에서 2004년 1%로 증가하였다.

표 3. 한국의 대칠레 농산물 수입 변화

단위: 천 달러, %

		전체 농산물 수입액(A)	전년대비 증가율	대칠레 농산물 수입액(B)	전년대비 증가율	시장점유율 B/A
2000년	농산물	5,104,509	9.0	14,107	-0.1	0.3
	축산물	1,678,762	34.8	110	-40.2	0.0
	임산물	1,744,144	13.8	26,778	-47.5	1.5
	전체	8,527,415	14.3	40,995	-37.3	0.5
2001년	농산물	5,325,307	4.3	11,485	-18.6	0.2
	축산물	1,466,500	-12.6	67	-39.1	0.0
	임산물	1,799,232	3.2	16,714	-37.6	0.9
	전체	8,591,039	0.7	28,266	-31.1	0.3
2002년	농산물	5,701,481	7.1	14,353	25.0	0.3
	축산물	1,948,470	32.9	6,484	9,577.6	0.3
	임산물	2,157,301	19.9	27,028	61.7	1.3
	전체	9,807,252	14.2	47,865	69.3	0.5
2003년	농산물	6,212,665	9.0	21,825	52.1	0.4
	축산물	2,115,555	8.6	30,530	370.9	1.4
	임산물	2,173,080	0.7	16,909	-37.4	0.8
	전체	10,501,300	7.1	69,264	44.7	0.7
2004년	농산물	7,444,567	19.8	26,510	21.5	0.4
	축산물	1,755,339	-17.0	54,997	80.1	3.1
	임산물	2,326,752	7.1	29,170	72.5	1.3
	전체	11,526,658	9.8	110,677	59.8	1.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www.kita.net).

4. 품목별 수입 실적 평가

4.1. 평가의 고려 요인

관세 감축: 한·칠레 FTA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FTA 이행에 따른 관세 감축률 이외에 환율, 칠레의 포도 가격, 우리나라 포도 가격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관세 감축의 경우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인 품목은 매년 9.1%씩 관세가 감축된다. 이러한 관세 감축이 적용되는 중요한 품목은 포도(11월부터 4월까지), 키위, 복숭아, 돼지고기 등이다.

환율: 원화 가치의 변동은 교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로 최근 우리나라 통화가치의 상승은 수입을 증가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 원/달러 환율은 2003년 대비 3.9% 하락하였다. 환율 하락은 수입가격을 하락시키고 수입가격 하락은 다시 관세를 감소시키게 된다. 환율과 관세율이 동일 비율로 하락한다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 하락이 관세 하락보다 크게 나타난다.

수출국의 가격: 농산물은 수급 상황 특히, 작황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출국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수출국의 가격 변동은 환율 변화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수입 단가의 변동 또한 관세 인하보다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칠레 포도 수입에 미친 영향: 2004년 칠레의 포도 가격은 2003년보다 높게 형성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칠레 포도 수입 단가도 상승하였다.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인 가운데 칠레산 포도의 수입을 증가시킨 요인은 환율과 관세 인하이므로 수입을 감소시킨 요인은 칠레산 포도 가격의 상승이었다. 환율 하락 부분과 칠레 포도 가격 변화가 반영된 원화표시 2004년 수입 단가는 2003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1월과 2

월에는 각각 14.2%, 7.7%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결국 수입 단가 상승이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를 능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관세 인하가 시작된 4월에는 수입 단가가 4.6% 하락하여 관세 인하 효과 9.1%와 함께 수입이 증가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4. 칠레산 신선포도 수입 단가 변화

단위 : %

구분	환율(원/\$)			수입단가(\$/kg)			수입 단가 변화율 (원/kg)
	2003년	2004년	2004/2003 (%)	2003년	2004년	2004/2003 (%)	2004/2003 (%)
1월	1,179.46	1,184.32	0.4	2.37	2.70	13.9	14.2
2월	1,191.27	1,166.69	-2.1	1.92	2.12	10.4	7.7
3월	1,233.68	1,166.34	-5.5	1.61	1.71	6.2	0.7
4월	1,231.51	1,150.85	-6.5	1.41	1.44	2.1	-4.6
5월	1,200.14	1,177.37	-1.9	1.37	1.44	5.1	2.8
6월	1,194.07	1,159.79	-2.9	1.38	1.50	8.7	5.5

주: 연평균 환율은 2003년 1,191.89원, 2004년 1,145.09원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www.kita.net).

4.2. 품목별 평가

포도: 칠레로부터의 포도 수입은 2004년에 전년 대비 3.6%(금액 기준임, 물량 기준 9% 감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포도 수입이 같은 기간에 65.5%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폭의 감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칠레의 한국 수입 포도 시장 점유율은 35%에서 3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입 감소의 중요한 원인은 FTA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칠레산 포도의 수입 단가가 상승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수입 단가는 4월을 제외하고 1~6월 중 0.7~14.2% 상승하였고, 이 기간에 수입은 11.0%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입 단가가 하락하고 관세 인하도 시작된 4월에는 수입이 11.2% 증가하였다.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가 11월부터 4월까지 이나 칠레산 포도의 수입이 1월부터 이루어지며 FTA가 4월부터 발효되었기 때문에 2004년의 경우 칠레가 FTA로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기간은 4월 한 달에 불과하였다. 칠레산 포도 수입은 1월에 시작되어 6월까지 지속되며 4월에 정점에 달한다. 따라서 1월부터 4월까지의 증가 추세를 보이다 5월과 6월에는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2004년에도 이러한 수입 형태는 그대로 이어졌다.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가 이루어진 2004년 4월 수입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하였으나 2002년 4월 대비 2003년 4월 수입 증가율이 29.4%에 달한 점, 환율 하락으로 수입 단가가 4.6%나 하락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04년 4월 수입 증가를 FTA 효과로 보기에에는 무리가 있다.

표 5. 한국의 칠레산 신선포도 수입 실적

단위 : 천달러,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입액	전년 대비 증가율	전월 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 대비 증가율	전월 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 대비 증가율	전월 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 대비 증가율	전월 대비 증가율
1월	-	-	-	257	-	-	739	187.5	-	368	-50.2	-
2월	1,251	-	-	1,828	46.1	611.3	1,228	-32.8	66.2	1,887	53.7	412.8
3월	2,093	86.2	67.3	2,368	13.1	29.5	2,493	5.3	103.0	-	-	-
4월	3,392	-4.3	62.1	4,390	29.4	85.4	4,882	11.2	95.8	-	-	-
5월	1,571	-35.8	-53.7	3,835	144.1	-12.6	3,422	-10.8	-29.9	-	-	-
6월	366	-70.2	-76.7	978	167.2	-74.5	369	-62.3	-89.2	-	-	-

* 2005년 실적은 1월~2월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www.kita.net).

돼지고기: 2004년 돼지고기의 대칠레 수입은 2003년에 비해 81%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율이 79.9%에 달하여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FTA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4년 15.5%로 2003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 현상은 2005년 1~2월에

도 지속되고 있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이 냉동 삼겹살 14.7%, 냉동 기타 돼지고기 127.3%로 나타났다. 소해면상뇌증(BSE) 등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 및 소비 감소와 그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수요 증가가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키위: 칠레산 키위 수입은 2004년 전년 대비 64%나 증가하였으나 전체 키위 수입 증가율 98.3%보다는 낮았다. 따라서 칠레의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도 7.8%에서 6.5%로 감소하였다. 칠레산 키위 수입의 증가는 FTA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키위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포도주: 칠레산 포도주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4년 전년 대비 증가율은 167.8%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포도주 수입 증가율 26.6%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칠레의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6.5%에서 13.8%로 증가하였다. 도주는 관세철폐 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관세 인하 폭이 큰 품목으로 2004년 칠레산 포도주(백포도주 및 적포도주)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FTA 효과가 크게 나타난 품목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 등 기존의 포도주 수출국들로부터 수입처가 전환되는 무역전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결과이다.

표 6. 한국의 주요 농산물 대칠레 수입 현황

단위: 천달러,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가율 (2004/2003)
돼지고기	전체	259,151	181,958	216,389	195,895	352,481	79.9
	대칠레	-	-	6,380	30,237	54,725	81.0
	(비중)	-	-	(2.9)	(15.4)	(15.5)	
포도	전체	31,104	25,410	30,267	38,953	41,503	65.5
	대칠레	10,371	8,573	8,710	13,674	13,180	-3.6
	(비중)	(33.3)	(33.7)	(28.8)	(35.1)	(31.8)	
키위	전체	8,647	9,272	16,371	22,528	44,679	98.3
	대칠레	748	647	1,361	1,758	2,885	64.1
	(비중)	(8.7)	(7.0)	(8.3)	(7.8)	(6.5)	
포도주	전체	19,802	23,109	29,417	45,783	57,979	26.6
	대칠레	483	652	1,205	2,990	8,008	167.8
	(비중)	(2.4)	(2.8)	(4.1)	(6.5)	(13.8)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www.kita.net).

5. 종합평가 및 제언

농업 부문에 대한 평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2004년 농림축산물의 대칠레 수입은 59.8%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 증가율 9.8%보다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칠레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수입 증가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그만큼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주로 칠레산 수입 품목이 우리나라 수입 농산물 시장에서 제3국과 경쟁하는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산물 가운데 많은 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관세철폐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농업 부문 한·칠레 FTA에 대한 평가는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동차,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 공산품의 관세철폐는 초기 연도에 완료된 경우가 많아 이행 초기에 FTA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수출국은 물론 수입국의 작황에 따라 가격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관세 감축 효과 이외에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기타 교역에 미치는 요인(예, 환율 및 국내외 가격 변화)을 고려하여 FTA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FTA 효과와 기타 효과를 구분해야: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의 원인은 소해면상뇌증(BSE) 등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 및 소비 감소와 그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수요 증가라고 볼 수 있다. 키위와 포도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관세 인하 효과와 수요 증가에 따른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키위의 경우 칠레가 우리나라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여 관세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그 밖에 복숭아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인하 품목이나 동식물검역 규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점, 돼지고기 가운데에서도 일부 냉동품(도체 및 이분도체 등)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에 대하여도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다.

피해액 추정 결과는 정확히 해석돼야: 연구 결과가 초기의 피해 규모를 과다하게 추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액 추정과 관련된 논의는 연구 방법론이나 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피해액을 추정한 연구 결과는 모두 피해액이 이행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복숭아의 경우 식물검역 규정에 의한 수입 금지 조치가 언제 해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가정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WTO/DDA 협상이 어떠한 내용으로 언제 타결되어 이행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점도 기존의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구 결과는 추정 방식 및 가정 조건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 인용되는 숫자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액 등 FTA로 인한 파급 효과와 관련된 추정치의 발표와 인용은 추정치가 내포하고 있는 가정조건, 개념 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없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포도 수입은 증가할 가능성 높아: 포도의 수입 감소는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가격 상승으로 1~6월 중 4월을 제외하고 수입 단가가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수입 단가가 하락하고 관세 인하가 시작된 4월에는 수입이 11.2% 증가하였다. 그러나 4월에 환율하락으로 수입 단가가 동시에 하락한 점, 2003년 4월 수입 증가율 또한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FTA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5년 1~2월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점, 관세 인하 폭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포도의 수입 증가 가능성은 높다.